



### 광주 진월동, 제6기 지사협 활동가 위촉

광주 남구 진월동은 최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위촉식에서는 지사협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새롭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2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한 진월동 사회보장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승수 위원장은 "2025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행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교선 진월동장은 "복지 현장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문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월동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광주시의회, 우수조례 시상식 '3관왕'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시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킨텍스에서 열린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홍기월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조례', 김나운 의원 발의 '광주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김종철 주무관 공무원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홍기월 의원의 조례는 2023년 대우위니아 사태를 계기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나운 의원의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 확대와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성현 기자**



### 광주 서부소방, 대형마트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자위소방대 등 관계자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진압장비인 EV-드립랜스를 활용해 실제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추진됐다.

EV-드립랜스는 터빈을 돌려 드릴이 작동되는 화재진압 장비로, 전기차 화재 시 차량 하부의 배터리를 직접 관통시켜 소화수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 소요시간을 기존 160여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해준다. **정성아 기자**

이번 훈련에서 서부소방 화재진압대원은 EV-드립랜스로 모형 배터리 케이스를 직접 관통시켜 소화수를 주입하는 기술을 반복 숙달했고, 이마트 자위소방대원들은 옥내소화전 사용을 통한 화재 초기 대응요령과 실제 상황에 대비해 완강기 등 피난장비를 활용한 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김희철 소방서장은 "국내 전기차 사용자 증가로 전기차 화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화재진압 능력을 높여 전기차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 충남현대제철호남향우회, 고향사랑 실천

전남도는 충남현대제철호남향우회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금의 뜻을 모아 '전남 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충남현대제철호남향우회 임달일 회장을 비롯한 향우 회원들은 고향사랑을 실천하고자 전남 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임달일 회장은 "소액이지만 고향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모두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고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은 "전남 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역과 출향민들의 화합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함께 기부금에 알맞는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경총, 제1676회 금요일조찬 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지난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에서 열린 제1676회 금요일조찬 포럼에서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단독으로 횡단한 김현국 탐험가를 초청해 '탐험가의 탄생, 유라시아 대륙횡단 도로'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현국 탐험가는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세계 최고의 탐험가 단체인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The Explorers Club)의 한국인 최초 정회원이며, EBS 세계테마기행 프로그램에 출연한 탐험가로서 이번 포럼 강연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쌓은 자신의 경험으로 타인의 도전과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광주경총 회원 기업 및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김현국 탐험가의 좋은 강연이 광주경총 회원 기업과 우리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인들에게 큰 용기를 준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진도지역자활센터 아웃리치 봉사활동 호응

진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호)와 자활기업인 한마음기업(대표 정영호)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도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웃리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진도군 의신면과 고군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세대를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봉사활동은 모두 1000만원이 소요됐으며, 한마음기업과 의신면·고군면 사무소의 협업으로 실시됐다.

주거환경 개선 대상은 의신면과 고군면에서 거주하는 세대로 선천적 질병, 퇴행성 관절염,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화장실

문제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가구이다.

부문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내부 화장실, 단열, 창호, 도배 등 공사를 통해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정영호 대표와 김호 센터장은 봉사활동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유난히 추운 요즘 날씨 때문에 오늘 봉사활동이 주민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동신대, 日 시즈오카산업대학과 협력 간담회

동신대학교가 일본의 시즈오카산업대학과 글로벌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지난 19일 동신대에 따르면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동신대 방문단은 최근 일본 시즈오카산업대학을 방문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학술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두 대학은 지난 2019년부터 교류 논의를 시작했으며, 2023년 국제 교류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5월에는 호리카와 토모히로 학장이 동신대를 방문해 교육·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송 부총장과 김영미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동신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생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시즈오카산업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대학 간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생 산업연수 추진 방안 등 논의를 펼쳤다. **최동환 기자**



### 광주환경공단, 승촌보캠핑장 응급처치 교육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승촌보캠핑장에서 남부소방서(119 재난대응단 구조구급팀)와 협력해 캠핑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지난 20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타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와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동절기 캠핑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캠핑장 근로자들에게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실무 교육이 제공되었다. **노병하 기자**



### 광주 북부경찰, 피싱범죄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21일 보이스 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한 두암신협 본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부상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대환대출 관련 약정위반 변제요청 연락을 받고 신협을 방문한 고객 60대 B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A씨의 빠른 신고와 대응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방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등 악질범죄에 대한 유기적인 대처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